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5.417>

JCCT 2024-9-49

도자를 활용한 참여예술의 표현 연구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Participating Art Using Ceramics

이선철*, 김혜진**

XuanZhe Li*, Hae-Jin Kim**

요약 본 연구는 도자 예술과 참여 예술의 협력 방식을 탐구하여 도예가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도자 예술이 참여 예술의 매체로서 예술 표현을 확대하고 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현대인의 자아 인식과 문화향유, 공동체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며, 사회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그랜트 키스터와 클레어 비숍의 참여 예술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자 예술이 참여 예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예술가의 도자 작품을 예로 들어 도자 예술이 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참여 예술의 매체로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논의하였고 도자 예술과 참여 예술의 협력을 알아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요어 : 도자 예술, 참여 예술, 예술의 매체, 공동체 문화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ollaborative methods between ceramic art and participatory art, expanding the scope of activities for ceramic artists. The research clarifies that ceramic art, as a medium of participatory art,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expanding artistic expression and enhancing social functions. This contributes to modern individuals' self-awareness and the formation of community culture, promoting social change. To this end, the study applies the participatory art methodologies of Grant Kester and Claire Bishop to analyze the role of ceramic art in participatory art. Specifically, by examining the ceramic works of artists, the study discusses the contributions of ceramic art as a medium of participatory art in researching social issues and promoting social change. Furthermore, the collaboration between ceramic art and participatory art also contributes to expanding the expressive boundaries of ceramic works.

Key words : Ceramic art, Participating art, Media of art, Community culture

1. 서론

소셜 미디어와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상호작용하는 예술이 일상생활에 확산되었다. 디지털 시대의 추진력에 따라 예술 작품의 상호작용과 참여는 예술이 사회, 생활,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증대시키며, 이는 현

대인의 자아 인식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사회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자 예술은 참여 예술과 협업하여 도예가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공공성을 확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랜트 키스터(Grant Kester)의 대화 미학과 클레어 비숍(Claire Bishop)의 참여 예술 이론을

* 정회원,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박사재학
**정회원,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교수
접수일: 2024년 6월 25일, 수정완료일: 2024년 8월 2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일

Received: June 25, 2024 / Revised: August 2, 2024

Accepted: September 1, 2024

*Corresponding Author: lxz593191319@gmail.com

Dept. of Retail Management, Kongju National Univ, Korea

깊이 있게 탐색하고, 참여 예술의 의미, 방법론 및 관객 참여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더 나아가 참여 예술 특성을 지닌 도자 작품을 이론적으로 해석하며 도자 예술이 참여 예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새로운 참여 방법에 도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능동적 활동을 하는 3명의 작가(클레어 투미(Clare Twomey), 비부 스리발라사(Vipoo Srivilasa), 아이웨이웨이(艾未未))를 통하여, 도예와 참여 예술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고, 작가를 통해 도예 분야에서 어떤 형태의 참여가 실행 가능한지, 도예의 어떤 특성적 표현이 대중에게 미학적 영감을 주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겠다. 현대 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도자 예술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겠다.

II. 선행연구 고찰

2.1 참여예술의 정의 및 역사

역사적으로 '참여'라는 개념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다양하게 변화해 왔지만, 관객이 작품에 참여한다는 본질은 유지되었다. 예술에서 '참여'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1] 첫째는 예술가가 관객을 작품 일부분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이는 참여 예술의 광의적 정의이다. 이 형식은 본질적으로 창의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관객의 개인적인 사고를 깊게 하고 작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두 번째는 예술 실천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목표로 하는 협의적 참여 예술이다. 이 범주의 예술가는 사회 문제, 갈등, 커뮤니티, 문화 등의 사회적 주제를 탐구하며, 예술에 더 많은 사회적 기능과 영향력을 부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협의적 참여 예술은 사회 문제의 논의를 촉발하고 사회 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 광의적 참여 예술보다 더 깊고 직접적이다. 반면, 광의적 참여 예술은 관객의 창의적인 미학적 경험을 강조하며, 더 명확한 미학적 추구를 가진다.

50년대 말, 뒤상(Marcel Duchamp)은 예술가와 관객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했다. 60년대의 예술 실천에서는 장소 특정 예술(Site-Specific Art), 개념 예술 등 새로운 예술 형태가 참여와 예술과 생활의 직접적인 연결을 강조했다. 80, 90년대에는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의 관계 미학과 수잔 레이스(Suzanne Lacy)의 "새로운 장르의 공공 예술"(New

Genre Public Art)이 참여 예술 실천과 이론의 발전을 촉진했다. 이 시기 예술가들은 예술을 통해 사회 문제에 개입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관객과의 고품질 상호작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림 1. <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의 표지
Figure 1. The cover of <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

21세기에 이르러 참여 예술의 미학 이론은 점차 보완되었다. 클레어 비숍의 '인공 지옥: 참여 예술과 관람 정치'(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와 그랜트 키스터의 대화 미학(Dialogical Aesthetics)은 참여 예술에 대한 미학적 기반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했다. 비숍은 '대립적'인 참여 미학을 강조하는 반면, 키스터는 '대화적'인 참여 미학을 강조했다. 비숍은 참여 미학에서 '대립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참여 예술은 항상 이중의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다: 그것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세계로부터 떨어져 있다. 따라서 그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참여자와 관객에게 일상 대화에서 억압된 모순을 전달하고, 비정상적이고, 불안하며, 즐거운 경험을 유발함으로써 우리가 세계와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한다".[2] 비숍은 참여 예술의 가치가 단지 관객의 물리적 참여에 국한되지 않고 깊은 사고를 자극하여 사회 비판을 심화시키고 사회 변혁을 일으키는 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스터는 참여적 경험이 전통적 미학을 넘어서며, 예술이 대화를 촉진하고 개인과 커뮤니티 간의 연결을 구축하는 능력이 그의 미학적 및 사회적 영향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다. 작품은 예술가 혼자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함께 창작 과정을 완성한다.[3]

참여 미술의 발전과 함께 관객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참여자의 정체성은 각 역사적 순간마다 다시 상상되었다: 1910년대의 '군중'에서 1920년대의 '대중'으로, 1960/1970년대 말의 '인민'으로, 1980년대의 '소외된 사람들'로, 1990년대의 '커뮤니티'로, 그리고 오늘날 현실 TV와 소셜 네트워크 문화의 '자원봉사자'까지 변화하였다.[2] 예술가들이 관객에게 점점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창작에 대한 일부 권한을 양도하고, 관객에게 더 많은 권한과 통제권을 부여하여 그들이 예술 창작 과정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했다.

2.2 현대 참여미술의 표현방법

참여 방법, 참여 주제, 참여 과정과 목적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분야와 복잡한 차원의 참여 예술 방식을 탐구하는 방법론을 제안해 왔다. 비숍과 키스터의 참여 예술 방법론은 모두 키스터가 제안한 대화 미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키스터는 예술이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성과 사회 변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숍은 <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에서 이러한 미학적 방법이 참여 예술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화 미학의 핵심은 상호작용과 협력으로, 모든 참여자는 평등한 발언권과 창작권을 가져야 한다. 키스터는 과정 중심의 접근을 주장하며, 창작 과정의 개방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중시하고, 참여자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존중하며 그들의 요구와 기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클레어 비숍은 참여 예술의 역할과 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참여 예술이 예술 세계와 사회 영역에서 이중적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두 영역 간의 성공적인 향해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 예술은 두 가지 수준에서 소통할 수 있다. 참여자와 관객에게 일상 대화에서 억압된 모순을 전달하고, 비정상적이고 불안하며 즐거운 경험을 통해 세계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해 준다. 그러나 두 번째 수준에 도달하려면 매개체인 '제3의 용어' (third term) 가 필요하다.[2] 이는 공공 상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물체, 이미지, 이야기, 영화 또는 심지어 스펙터클일 수 있다. 비숍은 참여 예술이 예술 세계의 매력과 사고 공간을 통해 관객이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문제를 생각하

거나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여 사회 변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키스터는 대화 미학을 기반으로 새로운 참여 예술 방법론인 협력 예술 방법론을 제안했다. 협력 예술은 공동 작업과 집단 상호작용을 통해 예술 작품을 창조하며, 대화, 상호작용 및 참여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의미를 생성하고, 예술 실천이 사회와 문화 변혁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을 강조한다. 키스터는 노동의 개념을 협력 예술 방법론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상징적이고 해석적인 노동을 통해 그들이 자신과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수공예와 노동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수공예 지식이 전달 가능한 기술임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공동 노동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4]

비숍과 키스터의 관점을 결합해 보면, 참여 예술 방법론의 핵심은 작가와 참여자의 공동 창작 과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매체(제3의 용어, 노동 등의 개념)가 필요하다. 이 매개체는 작가와 참여자 사이에 플랫폼이나 통로를 형성하여, 이러한 형태로 사회 변혁을 촉진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한다.

III. 도자를 통한 참여예술 작품 비교

3.1 클레어 투미

클레어 투미는 영국의 예술가로, 그녀의 작품은 주로 도자를 기반으로 한 대형 설치 작품과 특정 장소의 예술 작품으로 구성된다. 그녀의 설치 작품은 때로 특정 사회적 맥락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전시 기간만 존재하고 이후에는 사라지거나, 관객의 행동이 개념적으로 작품에 포함되기도 한다.[5]

클레어의 특정 장소 작품은 관객과 사회 활동을 포함하며, 더 넓은 범위의 커뮤니티 개념을 통해 이해되고 연구될 수 있다. 참여 예술의 틀 안에서 클레어 투미의 작품을 살펴보면, 참여성의 발전이 그녀의 창작 역사에 걸쳐 점진적으로 심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광범위하고 무 목적적인 참여에서 시작하여 점차 구체적인 범위와 사회적 사고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작품에서 도에는 "역사", "문화", "제작 공정" 등의 개념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고, 물질적인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림 2. 클레어 투미 <Factory: The Seen and the Unseen> 2018, 테이트 익스체인지, 런던
Figure 2. Clare Twomey, <Factory: The Seen and the Unseen> 2018, Tate Exchange, London

클레어 투미는 최근 작품 <Factory: The Seen and the Unseen>에서 테이트 익스체인지를 점토 일상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변환하여 생산 개념을 탐구했다. 이 프로젝트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참여자가 도자기 제작 관련 지식을 배우고 교환할 수 있는 가상의 도자기 공장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가상의 도자기 공장이 운영을 중단하고 질문의 공간으로 전환되었으며, 이곳에서 산업 전문가, 연구자, 제조업체가 강연을 진행했다.[6] 동시에 예술가는 공장 곳곳에 카드를 배치하여 참여자들이 공장, 지식, 물질문화 및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초대했다. 참여자들은 이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도예를 통해 의견 교환과 문제 논의를 이끄는 사회적 기능이 핵심이다.

클레어 투미는 도자 예술을 생산, 기술, 역사, 문화 및 커뮤니티의 개념 복합체로 전체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개념 복합체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노동, 가치관 및 교환에 대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제공했다. 이러한 형식에서 도자 예술의 개념은 다시 한번 확장되어, 문화와 커뮤니티의 상징이 되었으며, 능동적이고 공공성이 강한 참여 예술에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겼다. 도자 예술의 개념과 특정 장소의 개념이 합쳐져 작품은 참여자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매체를 제공한다.

3.2 비부 스리발라사

비부 스리발라사는 태국 출신으로 현재 호주에서 활동하는 현대 도예가이다. 그의 작품은 주로 이민자의 정체성, 성 정체성, 환경 문제 등 현대 사회의 초점이 되는 주제를 다룬다. 이민자로서 그의 정체성은 작품에 독특한 시각을 제공하며, 동서양 문화와 현대와 전통의 교차점을 융합한다. 대표작으로는 <Thai Na Town -

Little Oz 2012>, <Home 2013>, <Collective Reef 2015> 등이 있으며, 이 작품들은 그가 도자 예술을 어떻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 예술에 적용했는지를 보여준다. 비부의 참여 예술 작품은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티와의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협력하여 도예 작품을 완성하는 형식으로, 개인과 문화 정체성, 이민, 환경 문제를 논의한다.

<Home 2013>에서 비부는 커뮤니티의 정의와 형성을 논의하고자 했다. 그는 호주에 거주하는 네 명의 한국인을 프로젝트에 초대하였고, 각 참여자는 고향에서 가장 그리운 것을 기반으로 한 도자 조각을 만들도록 하였다. 제작 과정을 기록한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공유한 경험과 변화를 담아냈다. 비부는 그들의 답변과 자신의 이민 경험에 영감을 받아, 참여자의 조각 작품과 호응하는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러한 작품은 가족, 소통, 문화, 연결이라는 네 가지 공유된 커뮤니티 가치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7] 최종 도자 조각 작품은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비부가 예술 실천을 통해 커뮤니티와 이민자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된 내용을 전달한다.

<Home 2013>은 비부가 도자 예술을 참여 예술에 적용하여 사회 변혁과 문화 혁신을 촉진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또한, 관객이나 커뮤니티의 참여는 도자 예술의 표현력과 영향력을 높인다. 도자 제작 과정은 작가와 참여자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며, 도자 재료는 물질세계에서 참여 예술을 표현하는 실체를 제공한다. 예술가(인도자), 참여자(피 인도자), 도자 예술(매체), 이 세 요소가 비부의 참여 예술 실천의 과정을 구성한다. 예술가는 참여자를 이끌거나 참여자와 소통하여 도자를 매개로 사회 문제에 관한 관심과 변화를 이끌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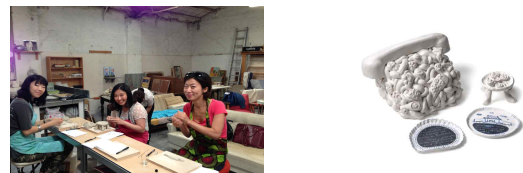


그림 3. 비부 스리발라사 <Home 2013> 2013, 경기도도자비엔날레, 한국
Figure 3. Vipoo Srivilasa <Home 2013> 2013, Gyeonggi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South Korea

3.3 아이웨이웨이

아이웨이웨이는 중국의 현대 예술가이자 정치 활동가이다. 그의 작품은 조각, 설치 미술, 영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해바라기씨>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이 설치 작품은 1억 개가 넘는 도자기 해바라기씨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 속 각 해바라기씨는 징더전의 도자 공예가들이 순수 제작한 것으로, 도자 위의 검은 무늬 또한 도자 채화 여공들이 일일이 손으로 그려 넣었다.

아이웨이웨이의 구상에 따르면, 이 작품의 목표는 관객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 작품과 상호작용을 하여 집단 무의식적인 맹종과 자본 생산의 착취를 비판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8] 그러나 전시의 건강 안전 문제로 인해 관객이 직접 작품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작품과 관객 간의 접촉, 대화에 아쉬움이 남았다.

연구자는 <해바라기씨>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여 참여 미술과 도자 예술의 관점에서 이 작품에서 표현되지 않은 부분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여 완성된 도자 공예 특성을 지닌 작품은 드물며, 이는 도자 예술이 참여 매체로서의 역할을 분석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작품을 통해 도자의 집단 생산이 참여 예술에서 사회적 참여를 유발하고, 특히 도자 생산지에서 사회적 배경을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아이웨이웨이가 작품 제작 과정에서 징더전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려 하였다. 하지만, 그는 “택시 기사조차도 이 일을 이야기하지만, 작가의 관점에서 작품을 깊이있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만약 그들에게 이 작품이 전시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하면, 왜 이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들의 이미지를 숨기고 상징화하였다.[9] 다른 한편으로, 아이웨이웨이는 작품 제작 과정에서 징더전

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징더전이 중국 도자기의 심장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임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금전 기반의 노동은 자발적이고 순수하게 문화나 커뮤니티를 발전시키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을 형성하였다. 집단적인 도자 제작은 매우 강한 참여성을 내포하고 있어 객관적인 사회적 배경을 드러내며, 이는 아이웨이웨이의 개인이 집단과 권위에 무의식적으로 복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약화시킨다.



그림 4. 아이웨이웨이 <해바라기씨> 2010, 테이트미술관, 런던
 Figure 4. Aiweiwei <Sunflower> 2010, Tate Modern, London



그림 5. 아이웨이웨이 <해바라기씨 만드는 과정> 2010, 촬영
 Figure 5. Aiweiwei <Sunflower> 2010, Film

V. 결 론

본 연구는 도자 예술이 참여 예술의 매체로서 가지는 독특한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도자 재료의 물질적 특성과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은

표 1. 도자를 활용한 참여 예술 작품 비교 분석

Table 1. Comparative analysis of participatory art works using ceramic art

작가	대표 작품	내재적 표현	도자의 역할	참여자	논의 주제
클레어 투미 Clare Twomey	<Factory: the seen the unseen>	의견 교환과 문제의 논의를 이끄는 사회적 기능	도예의 개념을 확장하여 참여를 위한 특별한 장소, 매개체 제공	활동 참여자	노동, 가치관, 교환에 관한 생각
비부 스리발라사 Vipoo Srivilasa	<Home 2013>	사회 변혁과 문화 확산을 추구	도예 제작 과정을 참여자와 소통하는 매개체로 사용하며 참여 예술의 물질성을 제공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민자 정체성과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논의
아이웨이웨이 艾未未	<해바라기씨>	사회적 배경과 사회 문제를 서술	대규모 도자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참여	징더전 도자 노동자, 미술관 관람객	집단과 개인, 자본주의 생산에 관한 논의

도자 예술이 클레어 비숍이 제안한 참여 예술의 핵심 개념인 '제3의 용어'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도자 공예와 노동의 중첩은 그랜트 키스터가 제안한 참여 예술 방법론의 핵심 개념과 일치하며, 도자는 노동을 통해 참여의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러한 두 가지 이론적 기반은 도자가 참여 예술의 매개체로서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는 클레어 투미, 비부 스리발라사, 그리고 아이웨이웨이의 도자 작품을 비교 분석하여 도자를 매개로 한 참여 예술의 표현 방식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첫째, 도자의 물질적 및 문화적 내포는 도자를 참여 예술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게 한다. 도자 재료는 역사를 기록하고 문화를 담아내며, 구체적인 예술 형식을 통해 복잡한 사회 문제를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웨이웨이의 <해바라기씨>는 집단 도자 생산의 본질적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배경을 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대화를 보여준다.

둘째, 도자 예술을 참여 예술에 적용함으로써 예술 표현 방식을 확장하는 동시에, 예술 작품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도자 예술을 통해 예술가는 관객이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레어 투미의 <Factory: the seen the unseen> 도자 제작 과정과 문화적 배경을 하나의 공공 공간으로 전환하여, 사람들이 공동 노동에 참여하고 공장 환경에서 사고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도자 참여 예술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혁신성을 탐구한다. 도자를 통해 예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더 잘 구현하고, 사회 변혁과 문화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부 스리발라사의 <Home 2013>는 작가가 참여자에게 도자 제작 지식을 전수하고, 평등한 소통의 장에서 이민과 커뮤니티 구축 경험을 함께 탐구하여 도자 예술이 문화 교류와 사회 문제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도자는 참여 예술의 매체로서 예술 표현의 형태를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변혁에서 공예 예술의 역할을 강화한다. 도자 재료를 참여 예술에 적용하는 방식을 더욱 탐구함으로써 현대 예술 발전에 새로운 방향과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References

- [1] Jin Whui Yeon, "The Aesthetics of Participation: Discourse of Participation and the Tasks of Contemporary Art Education",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Vol. 32, No. 3, pp.1-22, 2018.
- [2] Bishop Claire, "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 London:Verso, pp.277-284, 2012.
- [3] Grant Kester, *Conversation Pieces: Community and Communication in Modern Ar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91-94, 2004.
- [4] Grant Kester, "The One and the many Contemporary Collaborative Art in a Global Context", Duke University Press, pp.76-95, 2011.
- [5] Kim, Ye-Sung,&Kim, Ji-Hye, *Contemporary Site-Specific Ceramics Moving to Community*, The Korea Society of Craft, Vol. 25, No. 1, pp.11-25, 2022.
- [6] TATE MODERN WORKSHOP, *FACTORY THE SEEN AND THE UNSEEN*. <https://www.tate.org.uk/whats-on/tate-modern/factory>
- [7] Vipoo Srivilasa, *Home 2013*. <https://www.vipoo.com/collaborative-projects/home-2013>.
- [8] Simone Hancox, *Art, activism and the geopolitical imagination: Ai Weiwei's 'Sunflower Seeds'*, *Journal of Media Practice*, Vol. 12, No. 3, pp. 279-290, 2012.
- [9] CIGUAZI.mp4 Ai Weiwei Sunflower Seeds. <https://www.youtube.com/watch?v=YPTFI6VIQZM&list=PLE905F9E6AEE5A3DB&index=3&t=7s>